

2026년 8월 25일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

기술주 변동성 속 순환매 장세와 달러 약세의 나비효과



국내 시장 (KOSPI)

6,742.74 (+0.68%)

극심한 수급 공방전.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를 개인과 기관이 방어하며 하단 지지력 확인. 반도체 투톱의 홍보 속 낙폭 과대 섹터 중심의 뚜렷한 순환매 발생.



미국 증시 (US)

S&P 500 보합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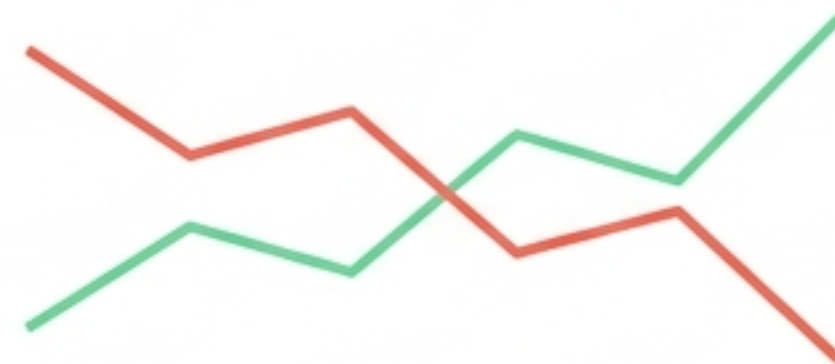
엔비디아(NVDA) 실적 발표 대기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술/AI 섹터 중심의 하방 압력 지속. 변동성 회피를 위한 에너지 ETF(XLE, VDE) 헤지 수요 급증.



거시 경제 (FICC)

달러 인덱스 -0.32

달러 가치 하락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며 금(+\$18), 비트코인(+\$1,240) 등 안전/대체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가속화. 원화 역시 강세 전환(W1,445.00).



글로벌-국내 증시 역학 관계

원인: US Jitters



기술주/AI 고평가 부담
+ NVDA 실적 경계감

나스닥 0.7% 하락,
단기 하방 압력 지속.

전이: Macro Shift



달러 약세(0.5, -0.32) 및
유가 단기 급등

외국인 자금 이탈
(KOSPI 500만 주 순매도).

결과 및 방어:
KR Resilience



3~4% 장중 급락 후
개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
+ 반도체에서 건설/기계 등
소외 업종으로 자금 이동

KOSPI 6,742.74 (+0.68%)
롤러코스터 장세 속 반등 마감.

KOSPI: 6,742.74 (+0.68%)

KOSDAQ: 827.15 (+1.70%)

외국인 엑소더스

순매도 500.3만 주
(지수 하방 압력 주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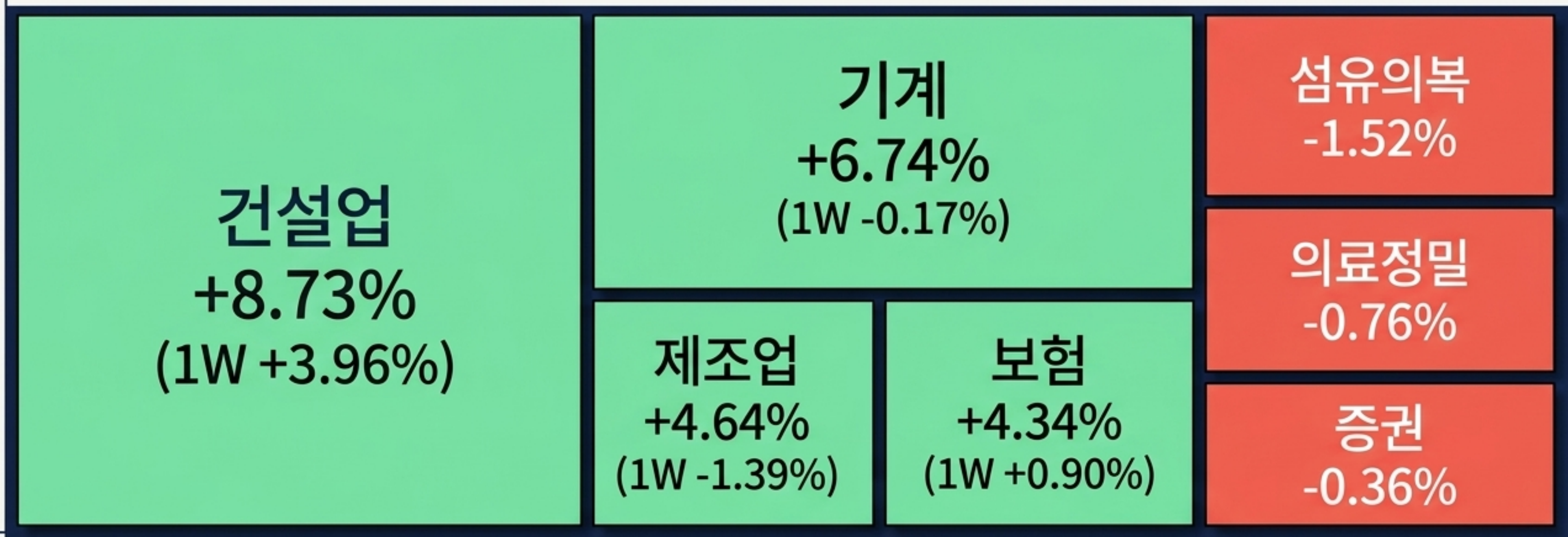
개인·기관 방어선

개인 순매수 278.5만 주

기관 순매수 20.3만 주

장중 코스닥 800선 붕괴 및 3~4% 급락 사태 발생. 그러나 개인과 기관의 '쌍끌이'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단 지지력을 극적으로 확인한 롤러코스터 장세.

산업별 순환매 히트맵



기술주 쓸림 현상이 완화되며 그간 소외되었던 건설 및 기계 업종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 연출.

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진단

반도체 투톱 - 횡보

삼성전자 257,000원 0.00%

SK하이닉스 1,678,000원 +0.42%

지수 추가 상승을 제한한 핵심 요인

2차전지 - 약세 심화

LG에너지솔루션 349,500원 -3.45%

LG화학 263,000원 -3.66%

자동차 & 바이오 - 선방

기아 134,900원 +2.59%

현대차 421,000원 +1.69%

삼성바이오로직스 1,585,000원 +0.76%

기타

POSCO홀딩스 332,000원 +1.37%

삼성SDI 519,000원 +0.78%

NAVER 220,500원 -1.34%

미국 증시 및 리스크 헤지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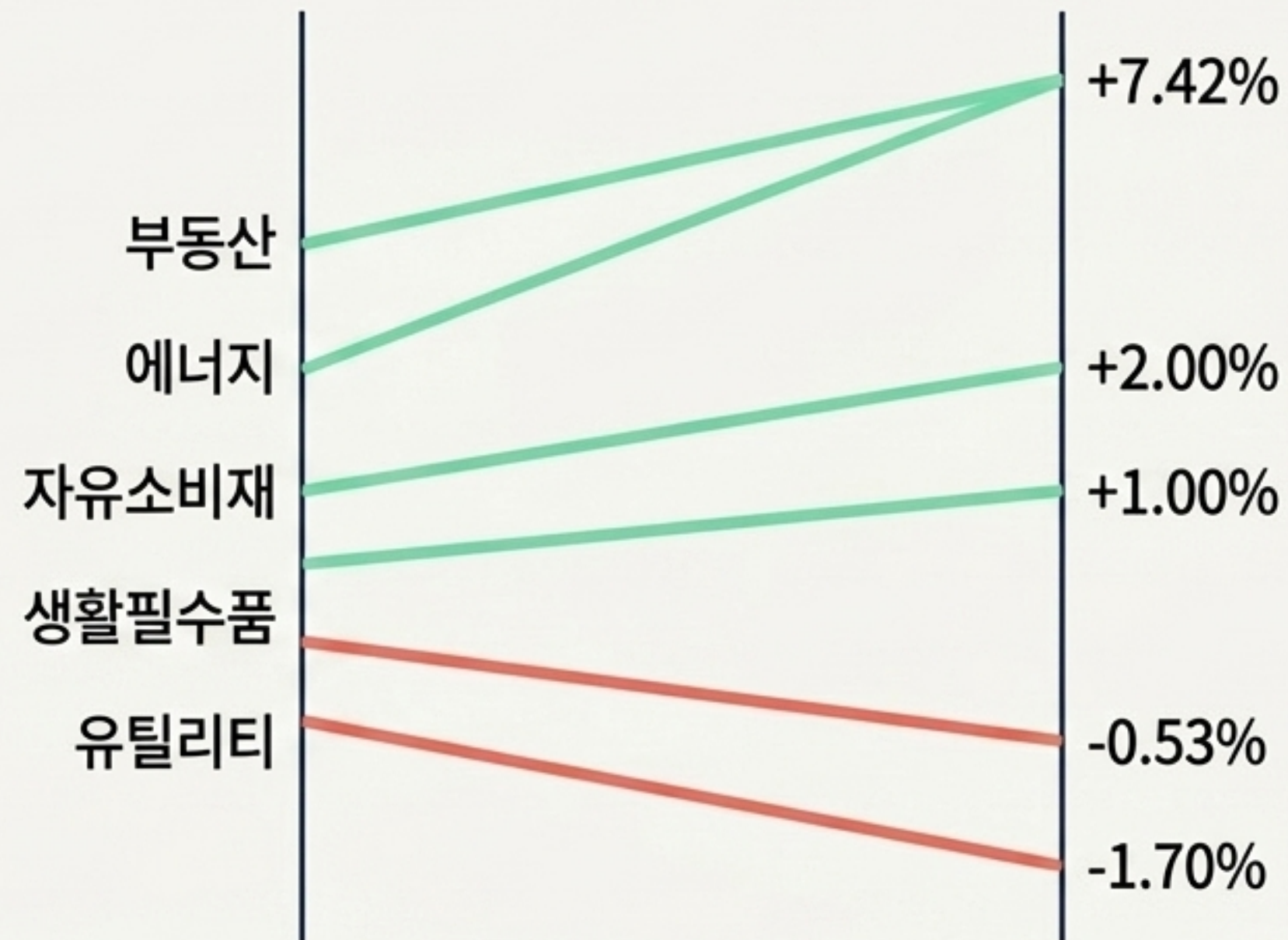


S&P 500: 7,652.86 (0.00%)



DOW: 53,261.95 (0.00%)

나스닥 -0.7% 하락.
월가 코멘트: 시티은행, '약세 흐름 재개' 경고.



반도체 투매 현상과 인플레이션/유가 리스크 부각으로,
에너지 ETF(XLE, VDE)를 통한 포트폴리오 헤지 수요 급증.

FICC 시장 진단 - 엇갈린 행보

채권 시장: 미 국채 10Y: 4.704% (+5bp)
➡ 매파 기초 잔존 속 금리 상승.

환율: 원/달러 ₩1,445.00 (-5.30)

↑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.
EUR/USD 상승(1.1662).

달러 약세 촉발
달러인덱스 0.5 (-0.3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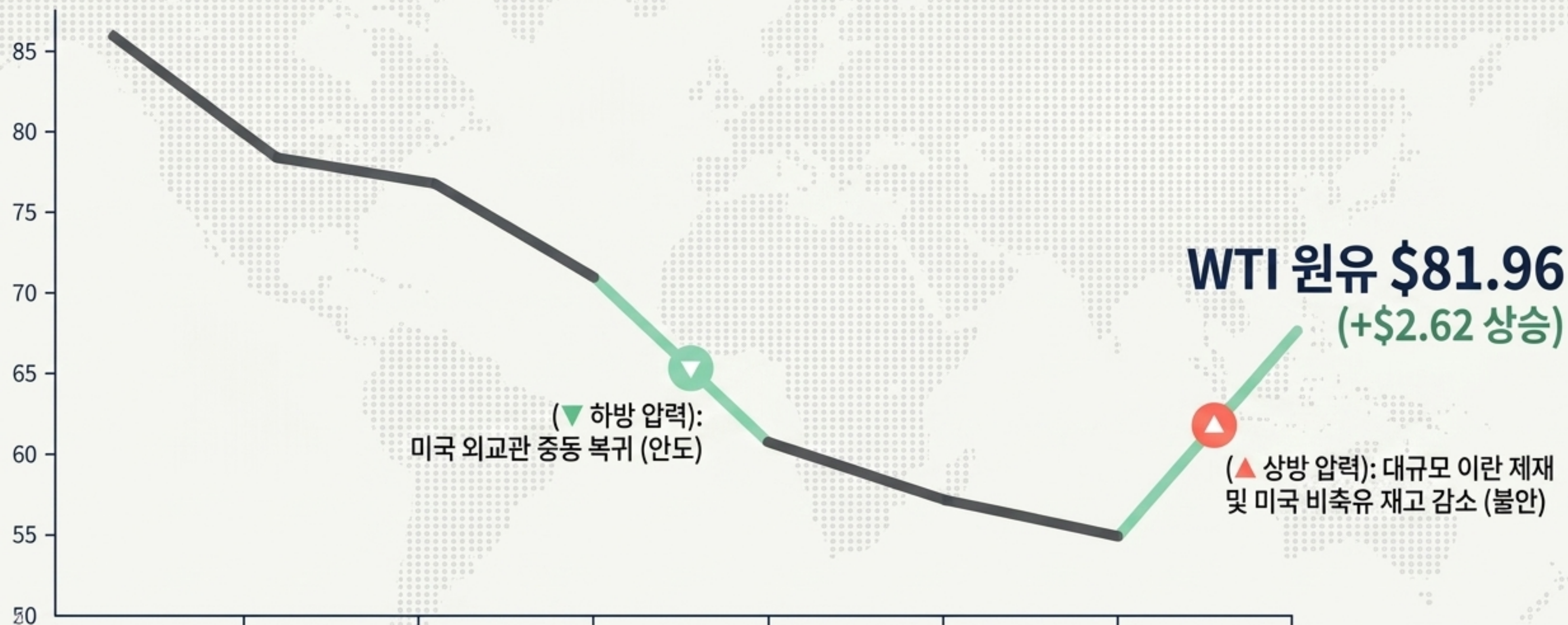
안전자산: 금(XAU) \$11 (+\$18)

↑ 안전자산 수요 확대.

대체자산: 비트코인 \$67,350 (+\$1,240)

↑ ETF 순유입 및 위험 회피 속 대안 모색.

국제 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



분석: 7거래일 연속 2%대 급락 후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며 저점 다지기 시도. 중동 지정학적 충돌 여부에 따라 극심한 유가 롤러코스터 장세 예상.

글로벌 증시 디커플링 맵

미국: 기술주 불안 및 실적 경계감 지속.

유럽: DAX +0.80%,
FTSE 100 +0.79%,
STOXX 50 +0.62% (방산주 강세
및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).

중국/홍콩: 상하이 +0.45%, 항셱 +1.59%
(본토 증시 정상화 속 상승).

일본: 닛케이 +0.46% (엔화 약세 수혜).

호주: ASX 200 +0.52%
(자원주 중심 상승).

인사이트

미국 증시와 아시아/유럽 증시 간의 디커플링 발생.
각국의 거시적 테마(방산, 자원, 환율)가 글로벌 기술주 약세 부담을 상쇄하며 자금 순환매 장세 주도.

주간 캘린더 & 마켓 트리거

8/26 수요일

 NVDA(엔비디아) 실적 발표

마켓 임팩트: 글로벌 AI/반도체 섹터의
향후 방향성을 결정지을 분수령.
높아진 시장 눈높이 충족 여부가 관건.

8/28 금요일

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(★★★)

마켓 임팩트: 기준금리 결정.
1,440원대까지 하락한 원/달러 환율의 추가 방향성
및 외국인 수급 변동성을 결정할 핵심 트리거.

최종 결론 (The Strategist's Takeaway)



전략 1: 국내 포트폴리오 다변화

반도체 투톱의 횡보 장세 속, 8%대 급등한 건설업 및 기계 등 낙폭 과대 소외주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룸(Room) 상존.



전략 2: 미국 증시 리스크 헤지

본격적인 변동성 구간 진입. 기술주/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및 에너지 ETF(XLE, VDE)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방어 유효.



전략 3: 환율 및 FICC 모니터링

달러 약세에 따른 금(\$11↑) 및 비트코인(\$67K↑) 강세 유지 중.
금요일 한은 금통위 결과에 따른 원화(수출주 영향) 방향성 집중 추적 요망.